

총회 제107회기 춘계 워크샵 성료

전국 20개 노회, 신임노회장 취임축하예배

본 교단 제107회기 총회(총회장 김의철 목사)는 지난 4월 24일(월) 전북 한소망교회(김정호목사)에서 전국노회장, 임원 워크샵을 가지고 새로 선출되어 취임한 노회장들에게 취임축하패를 전달하며 축하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워크샵에 앞선 개회예배는 총회 서기 배수영 목사(글로벌 예수교회)가 인도하고, 부총회장 조성윤 장로(길교회)가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마태28:20 말씀을 봉독하였다.

별히 이날 특송자로 나선 경기노회장 정영진 목사는 시편18편을 가사로 작정한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다. 이 예배의 설교자로 나선 총회장 김의철 목사는“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진 취임패 증정의 순서는 경기노회장 박광식 목사가 대표로 받았다. 증경총회장 임종학 목사(재인교회)의 격려사와 증경총회장 정완득 목사(성인교회)의 축사가 있는 후에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의 행사일정과 진행사

항을 알리고 증경총회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 이어진 워크샵은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가 사회자로서 진행하였다. 전국 20개 노회(가나다순)의 노회장들이 각자 자기소개 및 노회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노회장들의 인사와 현황보고에 이어서 진행된 워크샵의 첫 발제자로 나선 증경총회장 류현욱 목사(동명교회)는“교단비전과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기를 1. 교단직영 신학교문제, 2. 목회자 복지문제, 3. 교단발전기획위원회 상설화 등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헌법위원장 황호관 목사는“총회와 노회의 관계”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총회와 노회가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르며, 견제하고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과 협력관계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노회는 인사회가 있으나, 총회는 임시총회가 없음을 강조하고 모든 목사는 총회의 헌



법 책을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는“제108회 총회총대 선입과 총회준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춘계 워크샵을 통하여 20개노회장과 임원들의 진정한 원 팀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이 되었고, 제3의 장로교단의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번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섬긴 한소망교회의 당회와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모든 참석자들이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다.

제107총회 제7차 임원회 소식

장로기도회준비 위원회구성 결의; 위원장 박형진 목사 위촉



본 교단 총회 제107회기 7차 임원회(총회장 김의철목사는 지난 4월15일(토) 오후 6시 화상(미트)회의를 열고 현안을 처리하였다.

서기 배수영 목사(글로벌 예수교회)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신양고백 후 찬송150장 1,2절을 부른 후 부서기 이다윗 목사(찬양교회)가 기도하였다.

인도자가 요한복음 15:7을 봉독하고 “열매의 비밀”이란 주제로 총회장 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찬송 461장 부른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회의는 부총회장 조성윤 장로(길교회)의 기도하고 회원을 호명하여 성원을 보고하니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상정된 안건은 *4월 24일 춘계 워크샵 준비와발제자는 2명으로 정하였다.

*5월15일 목사, 장로 기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박형진 목사)를 구성하여 준비와 진행을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순서배정까지 위임하였다

*경북노회(노회장 정영진 목사)가입을 받기로 하고, *경기북노회의 명칭을 서북노회로 변경하락하기로 하였다.

총회장 목회서신



총회장
김의철 목사

다음 세대를 향한 꿈

이제 곧 5월이다. 1년 중 가장 싱그러운 계절의 여왕이 5월이 온다. 별거벗은 나무들이 4월에 움을 티고 5월이 되면 온몸에 푸르러움의 웃으로 같이입는다. 그 색깔은 너무나 청아하고 신비로워 길을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엔 아이가 있어야 한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는 가정은 쓸쓸하기 짝이 없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로 살아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님, 동생 함께 살았다. 복잡하긴 했지만 행복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핵가족 제도가 들어왔다. 자식이 결혼하면 분가시키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그 결과 따로 산다. 한 번씩 보기는 하지만 서로가 끈끈한 정이 사라졌다. 모든 것을 돈으로 떼운다. 사랑, 따뜻함, 정, 효도 이런 단어는 언젠가부터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세상이 기계화되고, 겉에 자식도 없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가정은 아들 부부와 한아파트에서 같이 산다. 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산다는 게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살다보니 너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녀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얼마나 따스한지 모른다. 한번 안아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잔소리는 아내 때문이 아니라 손녀가 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세상의 고령화 속도보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교회들 중에 평균나이가 70이 넘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 교회에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전혀 없어서 교육 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교단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부서를 중단한다는 기막힌 이야기도 들린다. 물론 시골교회들은 형편이 다르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 믿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해야 한다.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건축을 하였다. 많은 부채가 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대안학교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이다 보니 학생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난다. 필리핀 세부에 세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때로는 힘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사람을 키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해야 한다. 돈이 없어도 해야 한다. 집이라도 팔아서 해야 한다. 그러고도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이 일을 게을리하면 미래는 없다.

우리 교회들과 교단이 살려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무너져 가는 교회를 보고도 방관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다.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꿈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한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3명 4명 아이를 가진 가족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다. 목사의 말 한마디, 생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우리 교회들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꿈을 안은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 그래서 교회가 5월처럼 싱그럽고 생명의 신비가 느껴지게 하자. 기도하면 된다. 우리 모두 아멘 하여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는 전혀 없어서 교육 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교단이 되기를 꿈꾸어 본다.

제107회기 전국 교역자 여름수양회 일정 확정

재충전하여 도약하라(왕상17:1~7); 6월19~22일 속초 베니키아



제107회기 총회 교육부(부장 이경근목사)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시 한소망교회 사회의실에서 소위원회모임을 소집하여 제39회 전국교역자여름수양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앞서 개회예배는 교육부장이 인도하였으며, 홍주일목사가 기도하고 이경근목사의 말씀선포 후에 축도로써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 속개된 회무에서 주제는“재충

전하여 도약하라. 왕상17:1~7”로, 일정은 6월 19~22일(3박4일), 장소는 속초 베니키아 호텔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개회예배와 폐회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특강을 통하여 실제 목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교단통합이후 처음 갖는 수양회임을 고려하여 노회 간의 친교를 도모할 수 있는 특별 순서로서 노회대향 찬양축제의 밤을 갖기로 하였다.

2023년 제43회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주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창13:17~18)

준비위원회

위원장 박형진 목사(직전총회장)
부위원장 김재호 장로(전장연 회장)
위원 경기노회 박광식 목사 외
19개노회 노회장

미스바 대성회

대회장 김의철 목사(총회장)
부대회장 김중호 목사(부총회장)
조성윤 장로
주관 총회 임원 일동

참석자 행운권 추첨

1등 500,000원(현금)
2등 300,000원(현금)
3등 200,000원(현금)
4등 자전거 (10명)
5등 상품권 (10명)

일 정 표

11:00 개회예배
12:00 오찬
13:30 미스바대성회
14:30 행운권 추첨
15:00 폐회

총 회 장



김의철 목사
(성도가나안교회)

준비위원장



박형진 목사
(새문해교회)

- 일 시 : 2023년 5월 15일(월) 오전11시
- 장 소 : 송도가나안교회 / 전화 (032)859-5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40-8
- 참석 : 목사,장로(부부도 가능)
- 회비 : 노회찬조 200,000원
- 통장 : 농협 301-0116-9212-8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광고 : 광고후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 참석인원 5월10일(수)까지 확인 요망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대신교단 | 총 회 장 김의철 목사
서 기 배수영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社 說

전국목사장로 기도회 참여를 독려한다.

말씀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 하리라는 것이 예루살렘교회를 섬기던 사도들의 결단이었다. 우리 교단의 요즈 음 화두가 예배요 기도가 중심을 이루어 가고 있어서 소망을 갖는다. 교단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총회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강조하고 따라서 기도박에는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는 선한영향력의 결과라고 진 단한다. 그의 주장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요, 실천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어 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런 때에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임원회에서는 목사장로기도 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면서 위 원장에 박형진 목사(직전총회장)를 위촉 하였다는 회의 결과를 듣고, 총회장의 의 지가 어디 있는지 짐작해 본다. 지금까지 목사 장로기도회는 임원회에서 주관하여 온 행사였다. 그러나 급년에는 팬데믹 이 후 처음 갖는 기도회가 아닌가? 무제한적 으로, 모일 수 있는 데까지 모일 수 있다. 우리 교단의 역량을 저울질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총회장이 왜 모르겠는가? 이미 직전총회장과 현종 회장의 공동리더십이 갖는 역량을 우리 는 경험한 바있다. 이제 제3의 장로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단의 저력을 시험할 수 있는 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별로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서 준비위원회를 완벽 하게 구성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인가? 능 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자. 이 일은, 내 일, 네 일 을 따질 일이 결코 아니다. 주님의 일이 요, 우리의 일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 역시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준비위원회가 조직되면 거기 부름 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임원회가 든든히 뒷받침을 한다면 송도 가나안교회 새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날 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며 참여를 독 려하는 것이다.

어째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가?

최근에 교단 적으로 별 큰 소리 없이 진행된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호남권 장로 친목간담회, 노회들의 불철 정기회, 춘계 워크숍을 치렀고, 지난 호에는 부활절 헌금의 일부를 튀루키에 지 진 피해자를 위한 성금으로 모아 보내자 는 사회위원회(위원장 박성욱 목사)의 성 금 모금광고를 크게 올렸다. 그리고 2월 부터 교단사랑주일을 지키고 세례교인 헌금을 보내 달라는 광고가 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를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애국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 는다”고 탄식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이 무슨 까닭일까? 해마다 겪는 일이지 만 세례교인 헌금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10%에 미달이고, 지진피해 성금에 참여 하는 교회나 노회는 극소수이다. 수 일전 에 있었던 워크샵에 불참한 노회가 30%

였다. 실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 는 현상 그대로이다. 왜? 무엇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함께 고민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앞장선 사람들의 무신경 탓도 없지 않나 는 생각이 든다. 돈 봉투가 수난을 당하 고 있다. 돈 봉투는 참으로 좋은 것이었 다. 한 달 일하고 나서 모처럼 존재감을 실감케 하고 가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힘 이 돈 봉투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 예 봉투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돈 봉투가 정계를 강타하고 말았 다. 이번 워크 샵에서 사람을 모으는 일 에 돈 봉투가 답이라는 웃지못 할 말이 살 짝 지나가는 통에 잠깐 실소(失笑)한 순 간이 있었다. 모을 수만 있다면, 모이기만 한다면 돈 봉투를 동원해서라도 모이게 해야 한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이다.

總 會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김의철 사장 황호관 이사장 박성욱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장 김양섭
계좌번호 : 농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총회홈페이지 : www.rpck21.org E-mail :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기노회 제200회 정기회

“제200회 노회장 박광식 목사 선출”

경기노회(노회장 박만진 목사)는 지난 4월 10일(월) 오전10시 꽃밭교회(박광식 목사) 서 울 성북구 장월로 3길 1에 위치한 예배당에서 제200회 정기회가 열렸다. 서기 박광식 목사 (꽃밭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절차 에 따라 진행되었다.

신앙고백 후에 찬송27장을 다같이 부른 후 부노회장 박병욱 장로(꽃밭교회)가 기도하였 으며, 부서기 오영진 목사(온세상교회)가 뱀 전2:4-10 말씀을 봉독하였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노회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는 “자 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찬 송359장을 다같이 부른 후 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성찬식은 경동시찰장 정용경 목사 (세영교회)가 인도하였다. 찬송229장을 다같이 부른 후에 류성훈 목사(소망교회)가 기도하 고, 고후 4:10-15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 생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선포 한 후에 분 병(류기정 장로)과 분진(박병욱 장로)이 이루어 졌으며, 찬송150장을 함께 부른 후에 집례 자의 축도로 성찬식을 마쳤다.

이어진 회무는 노회장 박만진 목사(덕소제 일교회)가 회원 호명 후 제200회 정기회의 개 회를 선언하였다. 선관위원의 보고를 받고 새 로운 임원을 별항과 같이 선출하였으며, 8개 상비부서의 부장, 4개 시찰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각종 보고를 받은 후에 임시부로부터 이복형목사(합동측 강중 노회)의 회원가입청원을 받기로 하였다.

상정된 신 안전으로 튀루키에 지진피해 선 교헌금에 노회에서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총 대선출과 총신이사, 개혁공보이사 선임 건을 시찰장과 임원회에 잔무로 위임하고 제200회 정기회를 마쳤다. 한편 오찬을 대접한 꽃밭 교회와 당회와 여전도회에 감사하고 만찬은 노회에서 베풀고 교제를 나누는 훈훈한 시간 을 가졌다.

임원명단

노회장 박광식 목사(꽃밭교회), 부노회장 오영진 목사(온세상교회), 장로부노회장 박병 욱장로(꽃밭교회) 서기 박동혁목사(선한이웃 교회),부서기 정용경 목사(세영교회), 회의록 서기 조경호 목사(새생명교회) 부회의록서기 류성훈 목사(소망교회), 회계 김병철 목사(성 복시찰) 부회계 정상모 장로(한마음교회)

서울남노회 제95회 정기회

목사 임직; 개체교회 4개, 목사회원 7명 가입

본 교단 산하 서울 남노회(노회장 김선영 목사)는 지난 4월10일(월) 오후1시, 복음중앙 교회(최세한 목사 담임; 의정부 소재) 예배당 에서 제95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이다윗 목사(천양교회) 가 인도하였다.

다 같이 묵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 백한 후에 찬송28장을 합창한 후, 부노회장 김만술 목사가 기도하였다.

이 예배의 설교자로 나선 노회장 김선영 목 사는 “그리스도의 종(엡5:5~7)”이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찬송323장을 합창 하고 직전노회장 김정용 목사(중을산교회)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쳤다. 곧 이어진 성찬식은 최세한 목사가 집례하였으며, 최 목사는 “성 찬의 의의(고전11:23~26)”라는 제목으로 말 씀을 선포하고 순서에 따라 성찬예식을 집례 하였다.

한편 이날 정기회를 통해서 신상도교회의 김성진목사, 임석영 준목, 신석교회의 김종성 목사, 은혜와 평강교회 이상구 목사, 이영훈 목사(함께하는교회) 이영훈목사, 한신영목사, 신석교회 김진혁준목 등 4개 개체교회와 7명



의 목회자가 가입함으로 노회가 든든히 서가 는 모습을 함께 보며 영광을 돌린 일이다.

또한 임석영 준목을 목사로 임직하여 캐나 다 선교사로 파송할 준비를 하였다.

임직예배는 서기 이다윗 목사가 인도하고 중경노회장 임진철 목사가 기도하고 노회장은 “주께수께 받은 사명(행20:24)”이라는 제 목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안수위원은 강대민, 김만술, 박준배, 임진 철, 김정용, 김성진이였으며, 김성진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고 강대민 목사의 축도로서 임 직예배를 마쳤다.

절차에 따라 모든 회무를 원만하게 마치고, 교역자회의에서 주관하는 영종도친교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노회 제175회 정기회 지상중계

본 교단 소속 전북노회(노회장 박종윤목사) 는 지난 4월11일(화) 오전 10시 서현교회당(최 현오목사)에서 제175회 정기회를 개최하였 다. 회무에 앞선 개회 예배는 부노회장 홍주일 목사(모악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장로부노회 장 조성운 장로(길교회)가 기도하고 서기 김해 수목사(예수촌교회)는 고전11:1절을 봉독하 였으며, 노회장 박종윤목사는 “본 받아야 할 예수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에 직전노회장 김정호목사의 축도로 예배 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성찬예식은 전회장 최갑철목 사(남광교회) 집례, 기도 전노회장 최영일 목 사, 배병 김호운장로, 이정두장로 배진 박인 규장로 이한일 장로의 담당으로 분병과 분잔 을 하였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성찬예식을 마 쳤다.

집간의 휴식과 인사의 시간을 가진 후에 제 175회 정기회가 속개 되었다. 정기회의 의장 박종윤 노회장이 회무를 주관하였다. 서기가 회일절명하고 의장이 개회됨을 선언하였다. 이어서 준목, 전도사를 호명하고 경과보고를 했다. 서기의 절차보고와 서기보고가 끝난 후 노회장이 절차에 의해 지시와 질서위원을 자 벽한 후에 각 상비부서의 보고 후에 김정수 준 목의 목사임직식을 노회장 박종윤목사가 인도 하였다. 찬송 27장을 합창하고 회계 김재호장 로가 기도하고 부서기 노연수목사가 예배소서 3:7-9를 봉독한 후에 김해수목사와 2명이 특 별찬송을 하였다.

전 노회장 이부교목사가 “이 복음을 위하 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노회 장의 임직서약과 전노회장 조강희목사의 안수 기도, 안수례와 노회장의 공포 후에 김정수목 사에게 임직패를 증정하고, 전노회장 노회균



목사의 권면, 전장로부총회장 김일출장로의 축사 후에 찬송320장을 제창하고 김정수목사 의 축도로 임직식을 마쳤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속회하여 정회원호 명, 감사와 재정보고에 이어 상비부보고, 시찰 보고, 각 기관보고, 총회보고, 총회개혁신문사 보고, 신학교보고 후에 임원선거가 있었다. 임 원선거는 보선으로 끝났다. 신구임원교체와 회장분배를 마치고, 노회장 박종윤목사는 신 임노회장 김해수목사(예수촌교회)에게 의사 봉, 성경, 헌법을 인계하였다.

신임노회장 인사 후 계속된 회무는 공천위 원회보고, 상비부 및 시찰회조직, 총대 및 이사 선출, 청지기훈련원장, 은급국장, 위임국원을 각각 선출한 후에, 신안진 토의에서 회의록 낭 독까지의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고 부노회장 인 김재호장로의 선물제공을 비롯한 기타 광 고한 후에 노회장이 폐회예배를 인도하였다.

신임원명단

노회장 김해수 목사(예수촌교회), 부노회장 홍주일 목사(모악교회), 장로부노회장 김재 호 장로(한소망교회)서기 노연수 목사(군산예안 교회), 부서기 최현오 목사(서현교회), 회의록 서기 한권능 목사(수정교회), 부회록서기 유덕수 목사(반월주사랑교회), 회계 박인규 장로(모악 교회), 부회계 양승철 장로(서현교회)

전북개혁신학원 부활절 감사예배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이경근목사)은 지난 4월3일(목)에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날의 부활절기념감사예배는 진상문목사(예 벤에셀교회)가 인도하고, 강일신목사(더풍성 한교회)가 기도했다.

인도자는 누가복음24:13-27절을 봉독하 고 설교자로 나선 학장 이경근목사(평안교회) 는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 으며, 감사의 헌금을 드린 후에 이사장 김황 용목사(효자제일교회)가 봉헌기도와 축도로 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신대원의 부활절 감사예배는 교수부 장 정완득목사(성신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직 전학장 임종학목사(충신원장)가 기도했으며 설교자로 나선 신대원장 류현욱 목사(익산 동 명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요20:19-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학장 이경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예배에는 총신교수부장 황호관목사



(꿈꾸는교회)가 참석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전 해 주었다.

매년 학우회에서는 부활절기념감사예배를 드리고 계란과 떡을 준비하여 학우들과 교수 님들이 함께 나누며 부활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매년 학 우회에서는 5월의 축전을 준비하여 가르치고 수고하시는 스승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며, 천양 콘서트를 열어 보은의 시간을 가질 예정 임을 발표하였다.

경기노회신임원



노 회 장	박광식 목사(꽃밭교회)
부 노 회 장	오영진 목사(온세상교회)
장로부노회장	박병욱 장로(꽃밭교회)
서 기	박동혁 목사(선한이웃교회)
부 서 기	정용경 목사(세영교회)
회 록 서 기	조경호 목사(새생명교회)
부 회 록 서 기	류성훈 목사(소망교회)
회 계	김병철 목사(성복시찰)
부 회 계	정상모 장로(한마음교회)

전북노회신임원



노 회 장	김해수 목사(예수촌교회)
부 노 회 장	홍주일 목사(모악교회)
장로부노회장	김재호 장로(한소망교회)
서 기	노연수 목사(군산예안교회)
부 서 기	최현오 목사(서현교회)
회 록 서 기	한권능 목사(수정교회)
부 회 록 서 기	유덕수 목사(반월주사랑교회)
회 계	박인규 장로(모악교회)
부 회 계	양승철 장로(서현교회)

경인노회 춘계정기회

‘새판을 짜시는 하나님’ (사43:19)

경인노회(노회장 김명균 목사, 연결고리교회)는 지난 4월10일(월) 오전11:00 연결고리교회당(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83)에서 제54회 춘계 정기회를 열었다. 회의에 앞선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명균 목사(연결고리교회)가 인도하였다.

부노회장 이성현목사(포도나무교회)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이사야43:19 말씀을 봉독하고 “새판을 짜는 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노회원들이 합심하여 개체교회와 노회,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쳤다.

서기 노석두목사(예사랑교회)가 회원을 호명한다. 개회를 선언하고 절차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임원회에서 보고한 노회 규칙(별지)을 본다. 2. 정봉성목사(은혜교회)를 부노회장으로 보선하였으며, 규칙에 의하여 4월과 10월에 정기회로 모이고, 교역자회를 월1회 회원들이 섬기는 교회를 순회하며 교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연결고리교회에서 오찬을 섬김으로 노회원들의 칭송을 받았다.

전북연합회 제27회 정기총회 및 야유회

제28회기 신입회장에 진상운목사(전북중부노회)선출

전북연합회(회장 김종봉목사)는 지난 4월21일(금)오전9시30분에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무에 앞선 개회예배는 서기 정대진 목사(온전주교회)가 인도하였으며, 부회장 진상운목사(예벤텔교회)가 기도하였다. 인도자가 마가16:30-31을 봉독한 후에 회장 김종봉목사(낙원교회)의 잠간쉬어라 는 제목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회계양정자목사(빛과진리교회)의 광고 후에 설교자의 축도로써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관촌 사선대에서 야유회를 가지고 친목과 친교로서 4개 노회 회원 70여명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별 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즐기고, 회의 장소로 돌아와 회무를 진행하였다. 우선 임원전형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을 위임장 이부교목사(직전회장:반석교회)가 발표하였다. 제28회 회장으로 선출된 진상운 목사의 인사가 있는 후에 신규임원교체를 하고 회계 양정자목사가 결산보고한 후에 잔무를 신입원들에게 위임하고 제27회 정기총회 및 야유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한편 전북



연합회는 본교단 소속 전북 권 4개노회(전북, 전북동, 전북중부, 동서)의 연합체이다. 전북연합회는 회원들 간의 친목과 교회연합을 통한 회원들의 영적유익과 교회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 자격은 전북지역에 소속된 노회의 모든 목사와 장로로 하고 있다.

제28회기 임원 회장 진상운목사(전북중부) 상임 부회장 신장균목사(동서), 부회장 정대진목사(동서), 최영일목사(전북), 한민수장로, 이영진장로(전북동), 서기 유남규목사(전북중부), 부서기 강일신 목사(전북동), 상임총무 주상기목사(전북동), 협동총무 김해수목사(전북), 박찬섭목사(전북중부), 이환환목사(전북동), 이하중목사(동서), 회계 양정자 목사(전북동), 부회계 박양미목사

전남노회 123회 정기회

본교단의 전남지역 유일의 특수노회인 전남노회(회장 서용진 목사)는 지난 4월10일(월) 11시 30분, 상촌교회(서용진목사) 예배당에서 제123회 정기회를 열고 회무를 치렀다.

이날 개회예배는 노회장 서용진 목사가 인도하였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고백을 한 후에 찬송218장을 제창하고 부노회장 김원철 목사가 기도하였다.

서기 김춘식 목사(살롬교회)는 민수기 14:4~9절을 봉독하였으며, 노회장 서용진 목사는 “123회를 맞이한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찬송 330장을 함께 부르고 서용진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쳤다.

회무에 앞서 이균재 목사가 기도하고, 서기 김춘식 목사가 회원호명을 한 후에 성수를 보고하니 노회장은 제123회 정기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절차를 유인물로 받고 이어진 임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제108회 총회 총대를 선출한



후에 잔무를 임원회에 위임하고 폐회하였다.

임원 노회장 서용진목사, 부노회장 김원철 목사, 부노회장 한영부 장로, 서기 김춘식 목사, 부서기 이균재 목사, 회의록 서기 배성민 목사, 부회의록 서기 한인택 목사, 회계 이수미 목사, 부회계 정은희 목사
총대 서용진 목사, 배성민 목사, 김선주 장로, 신동호 장로

대구개혁신학원 개교 감사예배

교단분립 후 70년 만에 이룬 쾌거; 학장 이하중 목사

대구 새빛교회(이하중 목사) 예배당에서는 지난 3월31일(금) 오후2시, 대구개혁신학 연구원이 설립 및 개강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학장 이하중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신앙고백 후에 찬송28장을 제창하고 교수부장 김만술목사(새목장교회)가 기도하였다. 행정처장 이한희목사(케리그교회)가 담무2:1-3을 봉독하였으며 이현수목사(엠마오선교회)의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원장 임종학목사는 “제자를 양육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진 축사의 순서는 증경총회장 김정용 목사(중을산교회), 전북개혁신학원장 이경근목사(명안교회)가 담당하였으며 교단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사장 이수봉 목사(엠마오선교회)의 인사와 광고가 있는 후에 찬송338장을 함께 부른 후에 임종학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대구개혁신학원은 이사장 이수봉목사(선교회) 학장 이하중목사(설교회) 교무처장 김정용 목사(조지산학) 행정처장 이한희 목사(요한복음) 학생처장 김기찬목사(목회학) 교수부장 김만술 목사(종말론) 교수 이현수(소선지서) 교수 안수진(레위기) 교수 장현주(교회음악)를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에 1953년 장로교가 세워지고 1959년 WCC로 통합과 합동이 이루어진 후에 70년 만에 본교단 소속 개혁신원이 영남지방에 문을 연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로 여겨진다. 현재 등록한 학생은 10명이나 준비 중인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장래가 밝다고 관계자들이 자신감을 보였다. **학교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806-1 대구 새빛교회

전북동노회 여전도연합회 제382차 월례회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김정숙 권사)는 지난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전나원교회(김중봉목사) 예배당에서 제382차 월례회를 열고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 왔다.

이날 예배는 회장 김정숙 권사(낙원교회)가 인도하였다. 찬송178장을 함께 부르고 조금자 사모(낙원교회)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누가12:35~40절을 봉독한 후에 낙원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의 설교자로 나선 김종봉 목사(낙원교회)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축복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진행된 월례회는 류성란권사(명안교회)가 기도한 후에 서기 류성란 권사가 30명 출석을 보고함으로 회장이



개회됨을 선언하였다.

서기 류성란 권사(명안교회)의 회원 30명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전 회의록보고 및 회계보고(명안교회; 윤순일 전도사)를 받고 2023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을 결의하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써 폐회하였다. 한편 낙원교회는 참석 한 회원들을 위하여 오찬을 비롯한 모든 편의를 제공함으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동 정



김의철 목사(총회장, 송도가나안교회)
4월 9일(주) 연수구 부활절 주일 설교
4월10일(월) 경인노회 참석
4월24일(월) 춘계워크샵 설교



박형진 목사(직전총회장, 새은혜교회)
4월 6일(목) 목,장 기도준비
4월 9일(주) 부활주일 설교
4월10일(주) 경서노회 참석



임중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
3월31일(금) 대구개혁신학원 설립설교
4월13일(목) 전북신학원 부활절 기도
4월22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강의



류현욱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3월15일(토) 전국장로연합회 간담회 축사
3월15일(토) 전북개혁신학 신대원 부활절 예배 설교
4월 3일(월) 전북동노회 교역자회 정기총회 기도
4월 11일(화) 전북동노회 여전도연합회 기도



황호곤 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
4월10일(월) 경서노회 참석
4월15일(토) 전국장로연회 참석
4월25일(화) 총회개혁공보 집필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4월10일(월) 서울동노회 참석
4월15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강의
4월22일(토) 총회개혁신학원 설교



김정호 목사(부총회장, 한소망교회)
4월10일(월) 전북노회 참석
4월15일(토) 전국장로연합회 설교
4월24일(월) 춘계워크샵 설교



배수영 목사(서기, 예순글로벌교회)
4월15일(토) 7차임원회 인도
4월24일(월) 워크샵 인도
4월25일(월) 경인노회 설교



이다윗 목사(회의록서기, 찬양교회)
4월15일(토) 7차 임원회 기도
4월10일(월) 서울남노회 참석
4월22일(토) 총회신학 중앙



김해수 목사(전북노회장, 예수촌교회)
4월10일(월) 전북노회장 선임
4월 24일(월) 춘계워크샵 기도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4월 1, 15, 22일(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강의
4월10일(월) 경기노회 설교
4월24일(월) 춘계워크샵 인도
4월25일(화) 개혁공보 편집

40년 전통의 명품가구



출발가구

구수방®

황토침대

창고大방출

파격세일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공장가 파격 창고방출

유통, 대리점 과정없이 **공장에서 직접 창고大방출** 파격적인 가격에 한정판매



한쪽은 시원~ 한쪽은 뜨끈뜨끈~
고급 조절기 좌,우난방으로
실속 분리난방



편백 소나무
퀵(Q) 1500×2100×900mm 싱글 1000×2100×900mm

퀵(Q) **598,000원**

Model No. 204 싱글(S) **538,000원**

※돌침대 가능

창고大방출

★설치비 : 수도권 무료
(지방 50,000원 추가)



Model No. 307

멜바우 카우치쇼파
사이즈 2130×930×800mm

530,000원



Model No. 303

침착 편백 다용도평상
사이즈 : 800×2000×380mm

398,000원
황토불 선택시

다용도평상은
침대 & 소파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odel No. 304

침착서랍형 다용도 평상
사이즈 2000×800×400mm

439,000원 (편백, 침착)



출발가구

구수방

제조 및 매장 주소
1703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파달로 36 (010-3000-2720)

문의전화 / **031-336-5540**

각종 카드결제 가능

지상설교

부활의 예언
(시편 16편 1-16절)



조성영 목사
(본보 이사)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도 도우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1.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피곤하기 쉽고 병들고 부서지는 것인 인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은 한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욥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랐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도 심령과 육신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르는 인간 지식의 한계성 때문에 기도조차 바르게 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인간은 환경에 대해 대처하는 힘이 약합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사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권세자나 부자나 선생이나 선배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깨

닫게 하시고(요16:8),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고전12:3), 중생케 하시고(요3:3),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엡1:3). 또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요14:26), 인도하시고(행10:19), 성결케 하십니다(롬15:16).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돕는다는 말의 어원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무거운 짐을 옮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돕는 자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르기 위해 그 무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것 같은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3.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루기 위해 기도하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훈련을 위해 가장 훌륭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성도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며, 고난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드신 선을 이루게 된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인내가 곧 성리요 구원인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과 모든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달아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월6일 T국 남동부에서2차례의 대지진이 일어난 후 중보기도로 그리고 슬퍼하는 해자들과 함께 슬퍼해주시며 공동체를 통하여 물질로 섬겨주신 동역 자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진 이후 2백백이상 여진으로 다시 건물붕괴와 추가 희생자가 나오고 3월 중순에 남동부지역에 홍수까지 겹쳐서 재해를 당한 피해주민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을 직접 가서 보며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지진이후 열흘간 피해가 심한 남동부10개 도시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긴급구조팀 외에는 개인적 접근이 금지되어 사역자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피해자들이 2차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손을 모아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2주후 2월23일 남동부에서 지진피해가 가장 큰 Hatay로부터 저희가 있는 Konya의 한 대학교기숙사에 난민 90가정(4백93명)이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과 위생용품들을 대량 구입하여 수퍼마켓 판매에 의하여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터르키에 정부는 지진이후 5월까지 대학교들이 언 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 대학의 기숙사 시설을 지진피해자들이 몇 달간 비용없이 머물 수 있도록 제공했기에 이런 섬김이 가능했습니다.

26일 주일사역을 마치고 밤 버스편으로 다음날 아침 H시에 도착해서 사전 구입한BIM(T국의 편의점체인) 상품권 5백 개를 천막촌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며 위로하고 1시간 거리인(Samandra)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부부 Bruccu 자매와 Kayahan형제를 만나서 약간의 지원금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뜻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2박 3일 동안 섬긴 후 2월말 K시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3월13일 다시 야간버스를 타고 남동부 대지진의 진원지인 Kahrmanmaras에서 30분 거리의 Pazarcik 시골에 사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지진으로 손상이 있는 자택거주금지행정명령으로 텐트촌에 머물고 있는 6.25참전용사 카디르출라(89세)이라는 분입니다.



그 분과 만나서 격려하며 준비한 지원금을 전달한 후에 Gaziantep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6.25참전용사 Huseyin(92세)의 파님과 Mehmet Nergiz(97세)의 아들을 만났는데 두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서 직접 못 나오시고 자녀들이 대신 나와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원금을 전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특별히 Pazarcik 시골의 텐트촌에 머무는 C씨는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6.25전쟁에 참전한 51~52년의 전장기역을 떠올리며 저를 아들로 삼자고 반가워하시고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잠시 울컥 했습니다.

사실상 지진피해자를 돕는 3차례 섬김의 여정에서 사역자인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해 주었습니다. 터르키에 개신교 사역자협의회 의 당부도 있었고 복음의 필요성을 사역자들이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도움과 사랑을 오직 행동으로 보일 때라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라마단 금식기간이 시작된 3월27일 3차로 야간버스를 타고 이번 지진으로 가장 피해가 큰 Hatay와 항구인 Iskenderun으로 가서 6.25참전군인인 Ali Donmez(90세)와 2년 전 세상을 떠나신 참전군인 Ahmet Ulasim의 부인과 딸을 만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참전군인 Izzet Helvacı도 2년 전 세상을 떠나서 미망인을 만나 지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를 보이스

피싱 범으로 오해하고 약속한 장소에 오지 않아 만나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참전군인 협회장인 Behcel과 함께 그의 자동차로 Hatay의 빈민촌인 산자락 달동네로 찾아가서 직접 지원금을 건네주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고 미망인도 중풍으로 누워계신 것을 보고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금을 준 것 같아서 버스로 9시간 달려온 보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과거 안디옥교회가 있던 Hatay는 다마스쿠스와 함께 번성하던 시리아의 중심지였 두 도시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터르키에의 변방이 되어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지진의 잔해만 남은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식당도 상점도 모두 문을 닫아 다른 도시로 피신한 주민들 외에 텐트촌에 머무는 주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가서 아침과 저녁식사만 해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식수와 간이화장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위생문제도 심각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과거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앳달리아로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떠난 항구 Iskenderun으로 가서 지진으로 소천한 그 곳 개신교회 목회자 Hakan와 Pola 부부의 남겨진 아들 Yoel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Konya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터르키에의 동역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지난 두 달만 제 본업인 공동체사역과 복음전도보다 지진으로 인

한 피해자를 섬기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며 공동체사역에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라 여기며 위안을 삼습니다.

4월 둘째 주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찬양, 기도와 성찬식을 가진 후 아내와 자매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어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3월 둘째주간 아내와 함께 K시의 한 대학에서 이슬람신학을 전공하는 R자매(22)와 만나서 복음에 관한 책들을 선물로 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차드 르복장을 한 자매가 저희를 만난 목적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자신의 전공인 비교종교학 연구이든 저희는 자매가 복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 외 R(17)와 O형제(17)등 미성년 형제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공동체로 초청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의 상황입니다. 피해지역인 Hatay로 부터 지진 때문에 부모를 동시에 잃고 K시로 피신한 난민 중 믿는 O(30)형제를 만나서 물질로 사랑을 나누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T국이 6.25때 다른 16개 국가와 같이 한국에 참전군을 파병한 진짜이유는 소비에트 공산제국의 서진에 위기감을 느끼고 NATO라는 안보우산에 편입되기 위한 자국의 안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저희가 섬긴 6.25 참전군인중 적지않은 여섯

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수고가 사실이라면 저희도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복음을 전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T국인이 한국인을 보면 즐겨 사용하는 말이 Kan Kardesi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린 후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남아있는 날을 섬기기를 바라며 다음 소식 드릴 때까지 동역 자님의 평안을 빕니다.

T국 K시에서 김 기쁨/사랑 드림

기도 제목

- 이슬람을 전공하는 R자매와 두 미성년형제가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 지진으로H시에서 부모를 잃고 K시로 피신한 믿는 자 O형제가 낙심에서 벗어나 주께 감사하는 믿음까지 성숙할 수 있으며 역시 지진으로 I시의 목회자부모를 잃은 어린 요엘이 잘 성장해서 고난을 주신 주의 뜻을 깨닫고 주를 섬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 지진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T국 백성들 중 복음을 믿는 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5월중 저희 거주비자가 순적하게 허락되며 5월에 치러질 T국 대선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 후원관리 GMP AMERICA(김 기쁨 사랑 지정)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김의철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1,500,000	경인 노회	400,000	육 한 수	50,000
총회신학교	2,000,000	영남 노회	400,000	하늘문교회	50,000
김 의 철	800,000	경인 중앙	400,000	한정덕	50,000
박 성 욱	900,000	박 연 성	50,000	이다윗	50,000
경기 노회	400,000	주 상 기	50,000	권명희	50,000
전북 노회	400,000	강 대 민	200,000	꿈꾸는교회	100,000
전북동노회	400,000	김 선 영	350,000	신석교회	100,000
전북중부노회	150,000	이 상 철	50,000	이부교	350,000
서울남노회	300,000	한 상 진	500,000	전우성인교회	250,000
서울동노회	500,000	신 연 석	50,000	박숙희	50,000
경기서노회	600,000	김 영 식	50,000	꿈이있는교회	50,000
전남 노회	50,000	박 춘 배	350,000	박한섭	50,000
남부 노회	100,000	반석교회	10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신 · 편입생 모집요강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원장 임중학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Div,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석사(M.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 총회인준신학교 전복개혁신학연구원
-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 접 수 : 2023년도
-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總 會

改革公報

더불어 생각할 正論

하나님 뜻을 펼치는 가정



류현욱 목사
(증정교회장, 동명교회 담임)

만물이 소생하고 봄의 꽃향기를 물씬 풍기는 4월을 지나 이제 5월에 접어든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시온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다.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아간다. 옛날 먹는 데 쪼들렸던 시절에는 1년, 365일이 가정의 날이었다.

가족들은 좁은 방, 한 이불 속에서 넉넉한 내일을 꿈꾸었다. 가정은 캄캄한 것 같은 사회 속의 마지막 등대와 같다. 등대가 빛을 잃으면 배들이 길을 잃고 파산한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하고 가정의 질서로 사회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바르게 변화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셔야만 가능하다.(시 127:1절)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꿈을 펼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신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꿈)은? (살전 5:16-18절)

1. 항상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기뻐하라는 뜻은 이웃의 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다. 진심으로 축하할 때 나에게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또 이웃을 환영해 주고, 또 반갑게 인사한다.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은 배가되지 않겠는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렵거나 힘이 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쳐나고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는 신비한 은혜의 현상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강물처럼 흐르길 원한다.

느 8:10절에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라.”고 말씀했다.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쳐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2.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일은 언제 하며, 잠은 언제 자라는 말인가?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24시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아버지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진실함이 없는 기도는 40일 금식기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 된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우리는 거닐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찬송하며 잠자리에 드는 사람,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겠는가?

3.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가? 내가 호흡기 고장으로 산소호흡이 필요한데 누가 산소통을 하나 그저 제공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고마움을 두고두고 간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넉넉한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숨 쉬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는데 이 일에 감사하신 적이 있는가? 시골 오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전기가 들어가서 개설했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관공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어 우리에게 밝은 낮을 주셨는데 이 일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의미가 있다. 나에게 걸디기 어려운 시련이 엄습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아름다운 5월의 계절에 즈음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개혁대신 교단 산하 개체교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열매, 그리고 시 128편 말씀의 은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무릎을 꿇어본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충울신교회 담임)

이제 곧 계절의 여왕이자 감사의 달 5월을 맞게 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부모님과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월에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정해놓고 해마다 이날에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왜 이처럼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정해놓았을까? 아마도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하루만이라도 받은바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사람은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인(人)자가 보여 주듯 하나님께서 사람이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따라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도움을 받



황호관 목사
(본보 주필)

해돋 대양은 깊이가 37m 가까운 바다를 둘로 매웠다. 바다를 메우는 데 사용된 돌들 중 큰 것은 가로 15m, 세로 3m, 두께가 2.7m 가량이었으나 얼마나 큰 공사였으며 얼마나 많은 돌들이 쏟아 부어졌을까 그 규모자체가 짐작되지 않는다. 지중해바닷가에 건설한 이 인공 항구는 너비가 61m에 달했다. 이것들 중 반은 부닷혀오는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로 쓰였기 때문에 일차 파도차단장치였던 셈이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위에 성벽과 여러 망대들을 건설하였다는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이 작은 머리로는 상상조차 어렵다.

하늘은 에메랄드(Emerald) 빛으로 파랗고 쾌청하다. 손에 잡힐 듯 낮은 하늘은 온통 솜사탕 구름으로 한 가득이다. 기내에서 먹는 등마는 동안 아찔이었으므로 허기를 느낄 만한 시간인데도 낯선 여행 탓인지, 앞으로 전개될 여정으로 들뜬 탓인지 전혀 피곤이나 시장함을 느낄 수가 없다. 내만 아니고 모든 일행이 그러한 듯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다. 한

감사의 달 5월을 맞으며

는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즉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곱씹으면서 살아간다.

사실 인간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배은망덕의 죄이다. 인간의 타락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배은망덕에서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죄는 배은망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죄는 반국가 반사회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죄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인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은인에게 나쁜 보답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인류 공동의 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런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바울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딤후3:1).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은인에 대한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알프레드 드레퓔스(L' affaire Dreyfus)’이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사건으로 기억되는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퓔스 대위’는 1894년 12월 22일 프랑스 육군군법회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간첩죄였다. 재판의 내용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졌다. 범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군부는 진범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여론은 돌로 갈라졌다. ‘군의 명예와 국가질서’를 내세운 반 드레퓔스파와 진실·정의·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드레퓔스 지지파 간에 팽팽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때 드레퓔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하며 추방까지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밀 졸라’이다. 자연주의 소설가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신문기고문을 올렸다. 그의 글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양분되었던 여론도 ‘무죄’로 돌아섰다. 결국 1906년 최고재판소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드레퓔스는 소령으로 군에 복귀했다. 그 후 ‘졸라’가 사망하자 ‘드레퓔스’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달려와 그를 해하려는 사람들로 인

한 위험이 있으니 그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상관없네.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감사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네.”라고 말했다. 그는 은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사를 실천하였다. 감사는 인격의 지표이며, 성숙한 신앙의 표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드레퓔스가 졸라에게 받은 은혜와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 받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골 3:15)고 하였다. 감사의 달 5월을 맞으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한 이웃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생각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성지연수 기행 (3)

시간이 쉽게 지나고 말로만 듣고 성경에서 읽었던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했다. 옛 모습은 흔적만 남고 〈가이사라 국립공원〉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상당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다. 공원이 꽤나 넓어서 여행사에서 제공한 개인용수신기를 통하지 않고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검푸른 지중해는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등에 의하여 통치되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의 손길에 의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고대문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고이 간직한 채로 변함없이 출렁이며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 해돋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 특별히 건축양식의 발전에 있어서는 정말 크게 기여하였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실감되었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공원 안으로 들어가니 엄청난 규모의 야외극장이 우리를 맞이했다.

지금도 이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공연행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설명에 귀를 기울여 듣고 보니 옛날과 현대가 어우러져서 빛어지는 공연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찔한 감정을 음미하며 공연장을 돌아보았다. 백마가 끄는 쌍두마차를 타고 질주하던 검투사들의 땀이 배어있는 야외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하고도 정교한 오페스 트라 연주장면을 그려보면서 남몰래 미소 지

었다. 쌀랑한 바닷바람을 온 몸으로 느끼며 옛날, 그 옛날에 사랑을 노래하며 진한 향기를 발했음직한 Coral Palace(잠비엔터)로 가는 길 좌우에 역사의 증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고대 유물들의 소리 없는 증언을 듣고 볼 수 있었다. 엄청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옛날 그 시대를 알리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조각품들의 파편이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었다. 웅장한 모습을 뽐내

고 서있는 석조 아치아래 길을 지나면서 가이드가 묻는다. “코너스톤(Corner Stone)을 알고 계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왜 모르겠는가? 그런데 가이드는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 넘는 설명을 해 준다. 일반적으로 알기를 건축물 모퉁이에 세워지는 돌이라 하여 〈코너스톤=Corner Stone〉 즉 모퉁이 돌로 알고 있는데 실은 아치의 천정 공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돌이 〈코너스톤〉이라면서 천정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 마지막돌, 바로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꼭 그 자리에 끼워 넣음으로 해서 완성이 된다니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완성 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황하게 펼쳐진 지중해 해안 길을 따라가다 보니 드넓은 지중해 바닷물이 물보라를 남기며 넘실대는 풍경이 실로 장관이다.

바다가 연주하는 파도음악소리에 도취되

어 지중해 해변을 걷고 있는 황혼 길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꿈을 꾸는 것은 아늑히 싶었다. 해변에는 궁전 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고도 대아의 물에 손을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알려주는 석회비석에는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시대에 유대지역을 관할했던 지휘관(Praefectus Civitatum)이었으며, 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악명 높은 빌라도와 동일 인물임’을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공원을 걷다보니 우리 팀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을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는 역사적명소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이빙 센터도 있고, 당시를 고증하는 영상 관람 센터도 있으며, 해돋이 식사를 끌어오기 위해서 갈멜 산에서부터 이어 만든 공중수로도 있다고 설명 했다.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라는 그 유명한 엘리아가 거둔 승리의 터 갈멜 산에서부터 남쪽으로 약37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백부장 고벨료와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인 빌립의 거주지(행10:1,21:8)이며, 바울이 예루살렘 소요 중에서 이곳에 이르러 2년간 구금되었던 곳(행18:22,21:8,23:23-33,24:27,25:11,26:1)인데 주후 638년에 회교에 함락되었다.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 천막촌을 향하여 마음을 엮시다.

제107-6차 총회임원회는 튀르키예 진진피해자 천막촌에 부활절 기념 구호성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이를 사회위원회(위원장 박성욱목사)와 총회개혁공보사(사장 황호관 목사)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9일 부활절 헌금을 모아, 모아서 튀르키예 천막촌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시다.



총회장
김익철 목사



위원장
박성욱 목사

부활절 기념 구호성금 참여교회
꿈꾸는교회 (황호관 목사) 1,000,000원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교단

총 회 장 김익철 목사
사회위원장 박성욱 목사
개혁공보사 사장 황호관 목사

재언

란도리 법칙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늘의 비밀을 알고 승리를 바라는 영적인 지도자이며 경주자이다.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가는 하늘의 경주자이다.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선수이다. 승리를 위한 경주자인 선수는 마지막 주님이 수여하신 면류관을 획득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위하여 오늘도 쉼 없이 싸우면서 달린다.

그리기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너는 진정한 승리자이다'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첫 승도 아니고 준결승도 아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인 마지막, 최종 승자이기 를 원한다. 마지막의 승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선언이다.

이 승리를 위한 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바람직한 법칙은 <란도리>법칙이다. <란도리법칙>은 책의 제호이다. 란도리란 일본의 합기도인 아이키도의 대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최적인 힘, 기술, 타이밍을 이용해 최적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란도리 법칙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다루기에 쉽고 빠르게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유도를 통해 배운 지혜를 전수해 준다. 유도를 처음 시작 하는 사람에게는 한동안 쓰러지는 법, 즉 낙법을 먼저 가르친다. 쓰러지는 훈련을 통해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비로소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모든 인생은 먼저 공격하는 법을 배우고 후에 방어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싸움 줄만 알지 질 줄은 모른다. 교만한 줄만 알지 겸손할 줄은 모른다.

그러나 란도리 법칙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법을 먼저 배운다. 낮추는 법은 먼저 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한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목회자는 화평의 사도이다.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화평을 전해

한다. 예수님은 '내가 겹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신 주님을 배워야 한다. 가장 탁월한 장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이다.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상처를 겪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는다. 그리고 나라는 초토화 된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 한 좋은 사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이 두 나라의 싸움은 자국의 초토화는 물론이고, 이 전쟁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 싸우지 않는 데 있다. 우리의 소망은 화평에 있다. 우리의 바람은 화평에 있고 안정에 있다. 란도리 법칙의 두 번째는 진정한 승리자는 중요하지 않은 싸움은 저주받는 것이다.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경우가 참 많다. 우리는 이기는 법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른다.

한두 번 진다고 고쳐서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닌데 사소한 싸움에서 마저 이기려고 목숨을 건다. 결과는 어떤가? 우리는 매일 얼마나 필요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소한 문제로 얼마나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이제 어떤 것이 진정한 승리인가? 그것을 바로 알자.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는 등산가이다. 인생은 산을 타는 것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기에 이르는 말이다. 완벽한 등산을 위해서는 오름과 내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오랫동안 성공을 지속한 사람은 오르는 데는 탁월하지만 내려가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서 낭떠러지를 만나 떨어지면 헤어날 수 못하고 저 허우적대다가 포기한다. 실추된 명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을 잃었다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진정한 승리자는 정상에서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올라가면서도 내려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란도리 법칙을 배워서 실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균형을 이루는 경주자이어야 한다. 란도리 법칙은 자신을 낮추고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그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정중총회장, 본보 사장)

지난 10일 저녁 뉴스 시간에 음주운전사고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말에 정신이 들었다. 경기 하남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여 고등학생 등 3남매를 뒷바라지하며 꿈을 키워가는 성실한 아빠요, 남편인 40대 가정이 음주차량에 치어 일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한 분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흔한 배달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배달하면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터라 이날도 떡볶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사고라서 더욱 아팠다.

경찰 조사결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여 1차로를 달리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떡볶이 집 사장님을 숨지게 한 것이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사고 당시 면허정지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사고 당일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음주운전! 이는 살인행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라 하여 2019년에는 <윤창호 법>으로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던 것을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일이 있었다.

윤창호 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당시 고인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중에 휴가를 나와 부산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윤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어 정계에 진출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재원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윤씨의 사고를 기억하여 이런 사고를 예방해 보자는 생각이 모아져서<윤창호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고는 계속되었다.

더욱 심각한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천천만만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희생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서 어린이보

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에는 법과 서약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한 답을 하고 싶다.

어느 부부의 격이 맞지 않아서 주위에 안타까운 시선 속에 이혼이라도 하라는 주위의 권고에 그 남편의 대답은 “나도 그러고 싶는데 하나님과 목사님, 여러 증인 앞에서 고백한 우리의 서약 때문에 이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였다는 그 말이 가슴에 닿았다.

요즘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의 기본 틀을 벗어나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부끄러운 짓을 넘어 혼인의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는 성경에 정면 도전하는 죄악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기를 드는 인륜의 기본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를 규약성경은 극형으로 다스렸고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관계를 금지하는 인물로 지적하여 그 행위를 고치도록 유도하는 관용의 여유를 보여왔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이끌어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창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는 인륜대사인 혼인으로 완성하였으니 실로 혼인이 주는 감동은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음악적인 감동을 넘어 인간 개개인에게 주는

술 취하지 말라.

호구역내에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 법>이 태어났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발의된 법이다. 이런 강화된 도로교통법과는 상관없이 매년 500 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니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

지난 4월8일에 발생한 사고소식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종을 울린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다. 초등학생 네 명이 서로 애기꽃을 피우며 인도를 걷고 있었다. 사고 당하기 15분전 쯤에“친구들이랑 조금 더 놀다 갈게요”엄마에게 전화한 9살 배승아 어린이가 거기 함께 있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달린 사고를 낸 것이다. 이 차는 배승아 어린이의 친구들 셋을 덮쳤고, 중상을 입은 승아는 일어나지 못하고 생일을 한 달여 남긴 그 시간에 엄마 곁을 떠났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무엇이랴 변명을 하겠는가? 3월 20일에는 40대 운전자가 강남 한 복판 테헤란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서 뺑소니를 했다. 10분 뒤에는 교대역 사거리에서 또 다시 추돌사고를 낸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다. 그 후 약 40분간에 걸쳐 이 일대 약 4Km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며 차량 5대를 들이 받으면서도 술 취한 악마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50여 분간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며 7차례의 사고 끝에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 뉴스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함이 아닌가?

그 며칠 뒤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40대 딸이 음주운전으로 자기의 60대 어머니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사고를 치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한 잔 술로 시름을 달랠다지만 이런 사고소식을 듣고도 그런 말로써 위안을 삼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엡 5:18)”하시고, 지혜자 솔로몬은“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잠23:20)” 경고하면서,31절에는“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술 취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음주운전사고는 절대로 근절될 수 없는 사탄의 장난이라 싶다.

이 계절에 혼인을 생각한다.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령기의 남녀는 분발하여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구절벽이라는 국난을 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족과 친지의 경험적 교훈을 참고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면 이는 최상의 은총을 입는 것이다. 먼저 혼인의 대원칙은 하나 뒀에 있다.

주님은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 뒀을 위함이 그리도 간절하셨다. 우리들의 계획과 노력은 얼마나 그에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일이다. 혼인예식이 끝나기 무섭게 사랑이 식어 무관심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 뒀을 생각하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또 관심과 배려 그리고 비전과 꿈으로 이루는 최종 목표는 하나 뒀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혼인한 사람에게는 최상의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혼인하면 먼저 호칭이 바뀌고 발전한다. 남자와 여자가 신앙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아빠와 엄마로 여보 당신으로 그리고 우릴 바보로 만드는 손자 손녀의 입에서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호칭에 이르기까지, 혼인의 판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호칭이 아닌가? 하나님은 혼인한 부부에게 생

명과 축복권을 허락하신다. 인간이 인간을 낳는 생명 창조에 진입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식 사랑과 축복권을 특별히 허락하셨음이다. 축복하는 부모 밑에 복받은 자녀들이 존재한다. 이는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권의 효력이다.

그리고 혼인하면 부모 형제 가족이 시부모의 가족과 장인 장모 처가 식구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진정한 가족의 면모를 보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실제적 협력자를 얻고,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 부모님의 은공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뤄가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계산하여 혼인을 회피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간으로 태어나 전혀 고생하지 않고 얻는 일이 그 얼마나 되기에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하면 미래를 위해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혼인적령기의 젊은이들이여,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부부의 하나 뒀을 출발로 주님과 하나 뒀을 완성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지 않았는가?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승도가나안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김의철 목사</div><div>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34-17 전화 010-2247-8388</div></div></div>	<div><div>성현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11:00, 저녁 5: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강대민 목사</div><div>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div></div></div>	<div><div>덕소제일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박만진 목사</div><div>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div></div></div>	<div><div>평안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11:00, 오후 3:30 수요일밤: 7:30 구역예배(금): 오후 7:30</div></div><div>담임 이경근 목사</div><div>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장평2길 85 전화 010-9928-8218</div></div></div>	<div><div>광일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오후 3:0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장영광 목사</div><div>14205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div></div></div>
<div><div>모악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0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홍주일 목사</div><div>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div></div></div>	<div><div>재언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임중학 목사</div><div>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학산동2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div></div></div>	<div><div>꿈꾸는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밤: 9:00</div></div><div>담임 황호관 목사</div><div>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287번길 5 전화 010-6249-5982</div></div></div>	<div><div>남광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최갑철 목사</div><div>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 010-3654-4191</div></div></div>	<div><div>낙원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05:00 주일: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밤: 9:00</div></div><div>담임 김종봉 목사</div><div>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동 2길 10 전화 010-2375-5937</div></div></div>
<div><div>화평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기도: 4:30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00 수요일밤: 7:30 금요일아: 오후 9:00</div></div><div>담임 박종윤 목사</div><div>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원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div></div></div>	<div><div>나눔의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11:00, 오후 2:00 수요일밤: 7:00 금요일아: 9:00</div></div><div>담임 박찬섭 목사</div><div>전주시 완산구 선녀마2길 4(나눔요양병원) 전화 010-3656-2537</div></div></div>	<div><div>중심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오전 10:30, 오후 1:0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박경남 목사</div><div>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97-11(원현동, 일산원브르체스나)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div></div></div>	<div><div>벤엘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박성욱 목사</div><div>14908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22, 서강프라자 2층 전화 010-9127-2010 / 031-311-0213</div></div></div>	<div><div>한빛교회</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세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밤: 7:30</div></div><div>담임 임용태 목사</div><div>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div></div></div>

세계관공부

성경적 세계관 바로 알기(7)



부회의록서기 박공서 목사
(새부전교회 담임)

이러든 저러든 간에 타락한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어둠의 나라였다. 사탄의 고문관인 죄악성은 아주 지혜롭고도 강력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정욕이 만족되도록 돕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애정과 욕망을 짜릿하게 만족시켜주는 죄악성에 대하여 환상의 콤피요 좋은 친구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죄악성은 밋밋한 폴라에 탄산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타락한 인간에게 이 얼마나 반가운 친구였겠는가! 점진적으로 죄악성은 중력의 법과 같이 타락한 인간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죄악의 법(능력)이 되어갔다. 결국 죄악성은 인간을 노예로 삼아 그 어떤 인간도 죄악의 강력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었다. 사탄의 성질인 죄악성은 특징이 있다. 우리의 정욕적인 행실만을 양식으로 삼아 성장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욕이 왕이고, 죄악성은 장관인 이치이다. 우리의 정욕적인 행실이 숙주이기에 독자적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정욕적인 삶을 당연시한다. 심지어 미화하여 정욕을 누리는 삶이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욕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한 반드시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 하게 된다는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이것이 범죄의 철칙이다. 죄를 안 지으려 극기고행 하는 것은 소극적 경건이다. 일상에서 사소한 정욕적인 행실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적극적인 경건이라 할 수 있다. 죄악성에 지배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마귀를 닮아가고 심령은 결국 흑암의 지옥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현상이 무기력, 우울함, 답답함, 곤고함이다. 죄악성의 활약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죄 중 참만한 악령이 될 때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욕을 적극적으로 돕는 죄악성의 추악한 목적이다. 우리는 죄악성의 실체

와 지배받는 행실과 극복 비결을 알아야 한다. 죄악성은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성질이 아니라 동물에게만 주어진 동물의 본능이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동물의 본능이 인간 안에 뿌리내린 것이다. 그런데 단순한 동물의 성질과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은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동물의 성질은 한계점을 가지고 정해진 본능에 충실하지만, 인간 안에 뿌리내린 죄악성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귀 성까지 도달하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성이 단순한 동물성보다 위험하고도 무서운 이유이다. 각각의 죄악성의 특징과 실상과 극복의 비결을 알아보자.

1. 교만한 성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인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 (눅 12:16)]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성질이다. 이것은 주로 직분, 가문, 학벌, 용모, 지식, 주택, 재능 같은 소유를 통하여 밖으로 표출된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보다 소유가 적다고 느껴면 비굴함이나 질투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교만의 일종이다. 교만성에 지배를 받으면 상대방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며 말을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기 쉽다. 교만성에 강하게 지배받으면 쉽게 분노를 느끼고, 함부로 행동하며, 화를 잘 내기도 한다. 때때로 권위적으로 변하여 진실을 축소소패하고, 자신의 장점을 과대 포장하여 미화시키며 위세를 띤다. 항상 듣기보다 말하기를 즐기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남의 밑에 들어가 조용히 지도받기를 괴로워한다. 늘 남들이 자신에게 몰려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위하여 여닐가든지 파당을 짓고, 자신을 반대하는 리더를 비판하고 헐뜯는다. 늘 남에 대해서서 철저히 정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는 철저히 은폐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교만한 성질에 지배 받으면 일상에서 이러한 말을 쉽게 한다.

“이까짓 것,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만해, 창피하다. 나도 다 아는거야, 너나 똑바로 해라, 겨우 그 정도냐, 네가 뭔데, 너나 잘해라, 웃기고 있네, 그건 네 생각이고, 저리 꺼져라, 까불지마라 등등.”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잘 몰리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미움과 다툼이 쉬질 않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신경질과 짜증, 비난과 무례함이 동반한다.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나호에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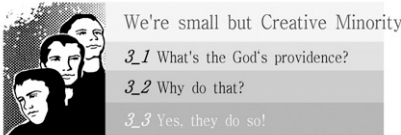
칼빈은 오시안더가 “본질적 청의론”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안에 의로움이 들어와서 혼합물로 주입된다는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하자, 이에 반대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에 그가 의가 되셨고(빌 2:7), 그가 아버지께 드린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시며(빌 2:8), 따라서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그의 신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직분의 본질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느냐고 물으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라고 대답한다.

성경강해



배수영 목사
(총회서기 / 예수골로보교회 담임)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What's the God's providence?

미디안이 7년 이상 이스라엘을 수탈, 억압, 착취로 피해해졌다. 그 와중에 수많은 군사로 무력 침략해 오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개같은 이방 민족 미디안에게 나라를 통제로 빼앗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삿7:1-9). 능부에게 불과한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 모병 나팔을 불어 32,000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차로, 22,000명을 집으로 보내고(3절), 2차로, 개같이 얻드려 물을 핏자들,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했다(5절). 현 시국에서 이 수적 자원은 천금과도 같은 전쟁자원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15)

그러나 그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순종하신 것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실 다른 방법이 과연 그에게 있었는가?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신성마저도 “케노시스”의 상태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문에 대한 왜곡이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케노시스”는 단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본성과 관련지어서 스스로 성자께서 낮아지심을 지적한다.

성자는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시고자 진정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비움(emptyed himself)”이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를 반영하는 구절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극치이자, 자기의 특권과 권능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나의 종이라고 하였다(사 52:13). 이런 개념들은 상호 교호(交互)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의 신

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고자 스스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2) 사람으로 몸을 입으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순종의 과정에서 보여준 성육신의 삶에서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진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시기 위해 정자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요 5:21, 딤후 2:14).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단순히 성육신으로만 좁게 해석하지 않았다. 비하의 신분에 계시는 동안에는 신적인 전능하심을 완전히 다 발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특권과 지위와 권능을 포기하고, 곧 하나님의 본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에, 율법에 복종해야만 하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빌 2:7). 이것은 복음서에 서술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대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물고 왔다. 육체를 가졌기에 율법을 지켜나가야 할 대상이 되었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의 외모와 지위와 출생배경 때문에, 그 누구도 나사렛 예수를 믿음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는 유일하신 증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삼중직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증보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성자 하나님 위에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결정적으로 거룩하심과 권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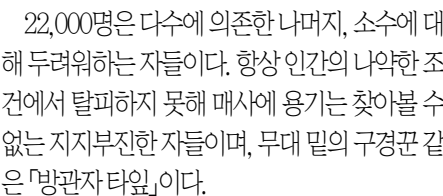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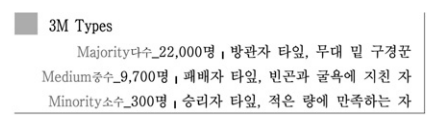
3) 종의 형체를 입으심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위해서 주시는 “종(doulos)”이 되셨다(마 20:27-28, 요 10:17-18). 그리스도는 종이 주인을 받들고 높여 주듯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원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님(kurios)”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가 되신다.

(다음호에 이어)

우리는 작지만 창조적 소수 We're small but creative minority

있지만, 오직 물을 손으로 떠서 활아먹는 300명만 남기다(6,7절)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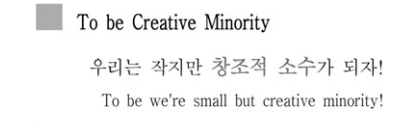
22,000명은 다수에 의존한 나머지, 소수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항상 인간의 나약한 조건에서 탈피하지 못해 매사에 용기는 찾아볼 수 없는 지지부진한 자들이며, 무대 밑의 구경꾼 같은 '명관자타'임이다.

9,700명은 다수 속에 포함되어 존재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다. 다만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영혼을 하찮은 것에도 팔아치우는 에서 같은, 영적으로 가련한 자들로 빈곤과 굴욕에 지친 '패배자 타임'이다.

300명은 치밀하고 용감한 자들이다. 아무리 절대적인 수가 떠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한층금 양이 손가락 사이로 거의 새 나간다 해도 작은 란에 만족하며 충성하며 「승리자 타임」으로 사는 자들이다.

결코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창조적 소수'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작지만 창조적 소수'가 되어

(To be we're small but creative minority) 옳은 말씀을 내보내려 한다. 그리고 승리자로서 순교적 가치에 최우선권을 두고(Put first priority on martyrdom values)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승리적 가치에 최우선권을 두는 삶이다.



왜 그럴까?-Why do that?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에 살면서 과거에 대한 충만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뿐이다.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며(계1:8), 우리의 현신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히13:8)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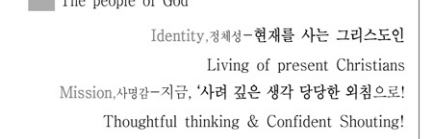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의 탄생, 쓰러진 십자가, 찬란한 부활이라는 과거의 사건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돌아보고 그것에 정직하게 감동하고 현재 속에서 그 사건을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한편,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결말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스런 삶, 그리스도의 재림, 장차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인 그것이다. 그 사건들을

내다보면서 그것에 정중하고 열망함으로 그 일들을 바라는 것이다.

현재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더욱, 주님의 '초람'과 '재림' 사이를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시작과 완성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 그럴대!-Yes, They do so!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Living of present Christians 으로서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새 생명 받았음은 결코 자을 수 없는 큰 사건으로서 그것을 기념하며 선포하는 긴장이 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한다. 또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생명의 면류관을 내다보면서 달려간다.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생각, 당당한 외침이 되도록!'(Thoughtful thinking & Confident Shouting!) 그 생각과 소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고 말아야 한다.

전국교회예배안내

<div><div>영복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이충년 목사</div><div>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호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div></div>	<div><div>동명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류현욱 목사</div><div>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div></div>	<div><div>새은혜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박형진 목사</div><div>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div></div>	<div><div>디베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신연식 목사</div><div>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39-7 전화 010-5438-0811</div></div>	<div><div>성인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정완욱 목사</div><div>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전2빌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div></div>
<div><div>동주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김양섭 목사</div><div>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div></div>	<div><div>높은뜻세움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밤 예배: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밤 예배: 7: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김신영 목사</div><div>인천시 서구 서로3로 225 동양파라곤A 단지내 정문 옆 전화 010-2307-0898</div></div>	<div><div>임마누엘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구역 예배(금): 7:30</div></div></div><div>담임 윤서구 목사</div><div>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망로534번길 6-8(산성동) 전화 010-3722-9106</div></div>	<div><div>중울산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김정목 목사</div><div>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div></div>	<div><div>소성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준호 목사</div><div>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div></div>
<div><div>수원성심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밤: 3:00 금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박춘배 목사</div><div>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도대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div></div>	<div><div>한마음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div></div></div><div>담임 한상진 목사</div><div>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42 전화 010-7676-6891</div></div>	<div><div>꽃밭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9:00</div></div></div><div>담임 박광식 목사</div><div>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div></div>	<div><div>한소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7:30</div></div></div><div>담임 김정호 목사</div><div>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안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div></div>	<div><div>김제반석교회</div><div><div></div><div><div>예배시간</div><div>새벽: 4:30 주일: 11:00 수요일 밤: 2:00 금요일 밤: 7:00</div></div></div><div>담임 이부교 목사</div><div>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div></div>

제107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제107회 총회주일은 2023년 1월 29일(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00,000원



높은뜻세움교회 김선영 목사
서울남노회
250,000원



한마음교회 한상진 목사
경기노회
400,000원



디베라교회 신은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원



죽주산성교회 김영식 목사
경안노회
100,000원



임마누엘교회 윤서구 목사
서울동노회
1,020,000원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
전북노회
1,500,000원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500,000원



벨엘교회 박성욱 목사
경성노회
400,000원



찬양교회 이다윗 목사
서울남노회
250,000원



덕소제일교회 박만진 목사
경기노회
320,000원



나눔의교회 박찬섭 목사
전북중부노회
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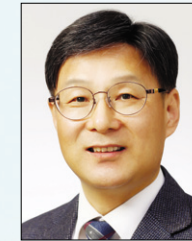
경인노회 김의철 목사
송도가나안교회
6,000,000원



서울남노회 박춘배 목사
수원성심교회
1,510,000원



전북노회 이부교 목사
반석교회
300,000원



전북동노회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500,000원



경선노회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300,000원



전북중부노회 박숙희 목사
동산교회
150,000원



경안노회 배수영 목사
글로벌교회
300,000원



전북중부노회 정완득 목사
전주성인교회
530,000원



경인노회 김명군 목사
연결교리패밀리처치
3,000,000만원



경기노회 박광식 목사
꽃밭교회
400,000원



서울남노회 문만호 목사
양곡제일교회
100,000원



전북노회 박종운 목사
전주평화교회
250,000원



경인노회 장성덕 목사
호산나교회
50,000원



경중노회 이철영 목사
새은혜로교회
150,000원



전북중부노회 김해수 목사
예수촌교회
150,000원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국민 488401-01-225487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총회

총회장 김의철 목사 / 서기 배수영 목사
03127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45, 임호빌딩 801호
전화 (02)742-3538, 010-6358-0109

2023년 제39회 전국교역자 하기 수양회

주제, “재 충전하여 도약하라”(왕상 17:1-7)

총회장



김의철 목사

교육부장



이경근 목사

대회장



류현욱 목사

준비위원장



윤서구 목사

-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22일(목) 3박4일
- 장 소 : 속초 베니키아호텔(033-635-9631)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707)
- 회 비 : 개인 12만원(4인1실), 부부 38만원(2인1실)
(입금계좌 :351-1266-3547-9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대 상 : 전국교회 교역자(목사, 사모, 준목, 전도사)
- 문의사항 : 부 장 이경근 목사(010-9928-8218)
서 기 김요환 목사(010-3604-9551)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010-6358-0191)
회 계 홍주일 목사(010-4170-9191)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교단

03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11, 임호빌딩 801호 전화:02)742-3538 팩스:02)742-3539

총 회 장 : 김의철 목사
교육부장 : 이경근 목사
교육부서기 : 김요환 목사